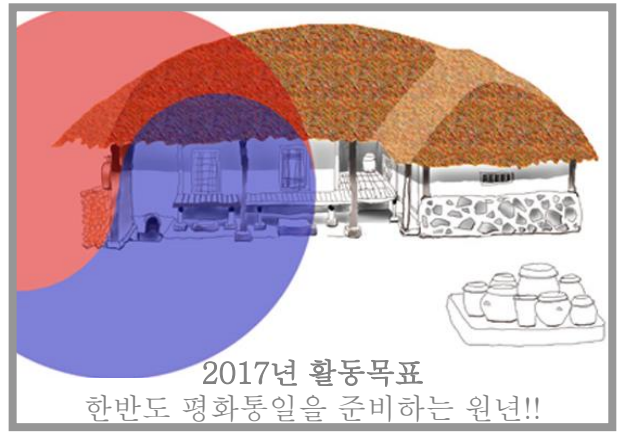




2017년 사업계획서



2017년 활동목표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원년!!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독교회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



2017년 사업계획

차 례



01. 애기봉 전망대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02. 통일문제 전문지 <통일로가는 길> 발행
03. 청소년들의 통일체험을 위한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04.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내외 통일문예 공모전
05. 나라사랑 국민음악회(남북평화의 종 타종식)
06. 세계한민족 청소년 백두산 평화캠프
07. 독일 라이프찌히 리콜라이교회 2017세계평화음악회
08. 독도 지키기 국제연대운동
09. Peace Korea Campaign
10. 북한 결식아동을 위한 1인 1라면 보내기 운동
11.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12. 제야의 남북평화의 종 타종행사



남북평화의 종 건립위원회

특별기획사업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1. 사업의 취지

평화의 종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아널드 슈와츠만’이 디자인한 작품으로 6M 높이의 UN문자를 형상화 한 구조물의 종탑이다. 84LA올림픽 디자인 감독과 88서울 올림픽 디자인 자문역을 역임한 아널드 슈워츠만은, 지난 2013년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용산 전쟁기념관에 건립된 한국평화의 종과 금번 JSA(판문점)와 애기봉 정상에 건립할 예정인 세계평화의 종과 남북평화의 종을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디자인하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에 평화의 종 동시타종식을 진행해 달라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를 통해 디자인을 재능기부 함으로 지난 2013년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전쟁기념관에 첫 번째 한국평화의 종이 건립 되었고, 금번에 두 번째로 광복과 분단70주년 조형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JSA에 세계평화의 종이, 그리고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김포 애기봉 전망대 정상에 남북평화의 종이 세 번째로 건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범국민적인 통일운동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운동 차원에서, 총 26개의 평화의 종을 건립한다는 목표로, 오는 2023년 한국전 정전70주년까지 이미 한국에 세워진 3개의 평화의 종을 포함하여 참전 21개국 수도와 유엔본부 앞 등 총 25개의 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마지막 26번째 종은 통일이 되는 그 날, 평양에 건립할 예정이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주제: 아, DMZ 녹슨 철조망!
평화의 종이 되어 울리다.

일시: 2017년 2월 ~ 2018년 12월

장소: 애기봉 전망대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부, 국방부, 국민대통합위원회, 경기도, 김포시, 대한민국건국회,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미주한인총연합회, 재독한인총연합회



애기봉 전망대 평화생태공원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



평화공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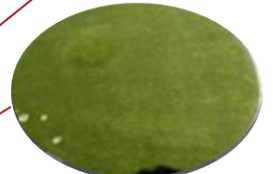
협찬기업 로고탑



참여자 기념명판



6.25전쟁 기록화 조각판



다목적 남북평화마당



애기봉 전망대



평화종일기원 리본 줄이 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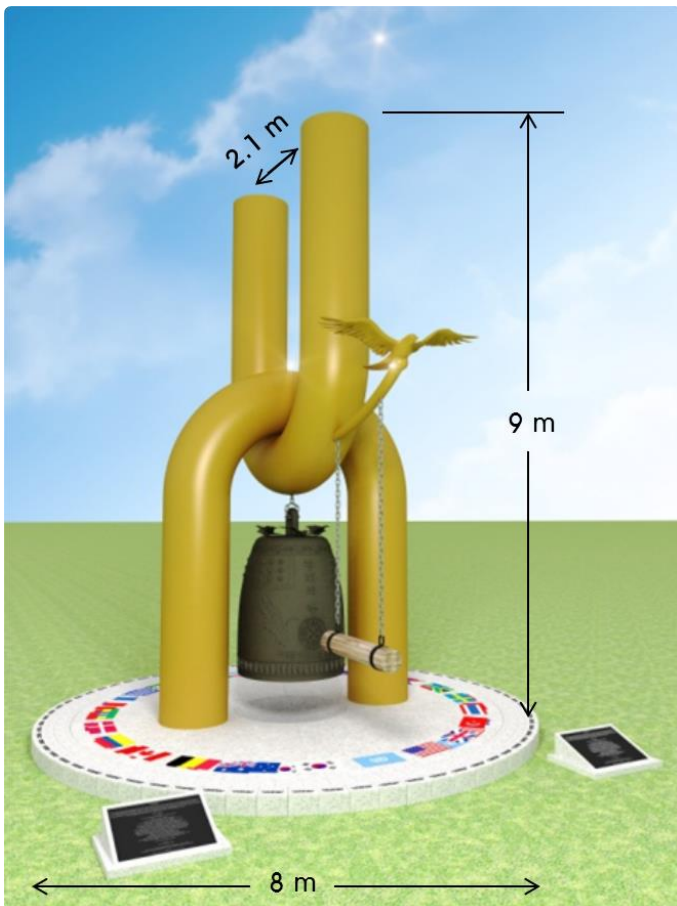
남북평화의 종: 반세기여 년 동안 애기봉 정상에서 북녘 땅에 평화의 밝은 빛을 비춰 오다 지난 2014년 시설을 노후화로 철거되었던 성탄트리 십자가 점등 탑과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거된 탄피, 그리고 민족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 등을 녹여 제작되었다.

애기봉 전망대 남북평화의 종 건립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북한 땅이 눈앞에 보이는 애기봉에 남북 간의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로서 22m 높이의 성탄트리 점등식이 행해졌다. 북한은 매년 성탄트리 점등이 북한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조준사격 하겠다는 등 협박을 해 오던 중, 지난 2014년 10월 15~16일 양일간에 애기봉을 관할하는 부대장이 철탑의 안전성을 이유로 이를 철거하여 대통령이 진노하였음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과 기독교계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김포시당국에서는 북녘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애기봉 일대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들의 소망을 담은 국가안보체험공간으로서의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된 철탑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공원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본 협회가 주관하여 진행중인 평화의 종탑을 건립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 오며 따라, 지난 2015년 2월 11일 협회 관계자들이 김포시의 안내를 받아 애기봉을 방문하여 철탑 철거현장을 둘러보고 평화의 종 건립에 적정한 위치와 부지 등을 협의하였다.

따라서 본 협회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당시에 사용되었던 낡은 탄피,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이곳 애기봉 전망대에 세워져 있었던 성탄트리 철탑 등을 녹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내외 동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김포시와 더불어 이곳 애기봉 정상에 세 번째 평화의 종으로 <남북평화의 종> 건립을 추진하고, 매년 이곳에서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질 수 있는 범국민 통일기원 제야(除夜)의 타종식과 해맞이 타종식, 그리고 통일가요제 등 다양한 평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건립된
한국 평화의 종과,
JSA(판문점)에 건립될
세계평화의 종은
6m 높이로 제작되었으나,

이곳, 애기봉 전망대에 세워질
남북평화의 종은
북녘 땅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9m 높이로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북녘 땅을 비추었던
성탄트리 철탑이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된 이후
많은 국민들의 아쉬워 했던
심정을 헤아려,
평화의 종탑 제작에
철거되었던 철탑을 함께 녹여
그 의미를 간직하고자 한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기간 | 2016. 11 ~ 2018. 12 면적 | 49,500 m²
 발주 | 김포시 설계 | 履露齋 IROJE architects & planners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평화공원로 139 (49,500m²) 애기봉 일대, 접근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김포시가 395 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들여, 전망대 등을 비롯해 평화광장, 생태전시관 등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2016년에 후반기 착공,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순수민간차원의 범국민적인 통일운동 일환으로 전망대 정상에 <북북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의 상징적인 조영물로 승화 발전시켜 갈 예정이다.

1. 전망대 2. 기념마당 3. 전망대 오름길 4. 평화의종
5. 주차장 6. 전시관 7. 평화광장 8. 해병대전적비(기존)

애기봉의 지리적 위치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남북평화의 종' 건립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6.04.06. 16:13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6·25전쟁의 상흔이 서려 있는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조망과 6.25참전용사의 심장에 박힌 탄피가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하 애기봉)에서 '남북평화의 종'으로 재탄생한다고 6일 밝혔다.

'평화의 종'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정부 공식행사인 한국전 정전60주년 기념식에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비무장지대(DMZ)의 녹슨 철조망과 참전용사의 심장에 박힌 탄피를 녹여 제작한 국민보은메달을 받고 감격해 하는 참전용사의 모습을 보고 1957년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겸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감독인 아놀드 슈와츠만 경이 '평화의 종'을 구상하게 됐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관계자들이 4월 5일 김포시를 방문하여 유영록 시장과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금번 공동사업을 계기로 향후 쌍방이 적극 협력하여 범국민적인 평화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을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 공동추진위원장에 추대하고, 용산 전쟁기념관에 첫 번째로 건립된 한국평화의 종 미니어처 추대패와 한반도 평화메달을 수여했다. (사진 좌로부터, 채낙중 김포시 관광팀장, 홍영선 우리민족교류협회 상임이사,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유영록 김포시장, 김영진 우리민족교류협회장, 박동균 김포시 부시장, 이성구 김포시 복지문화국장, 심상연 김포시 문화예술과장)

'평화의 종'은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아놀드 슈와츠만 경으로부터 디자인을 재능기부 받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난 2013년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전쟁기념관에 첫번째 한국평화의 종을 건립하였고, 2015년 민족분단 70주년 특별기획사업 일환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JSA(판문점)에 두번째 세계평화의 종을 착공하였으며, 추진중인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은 세번째 평화의 종이다. 본 협회는 계속하여 오는 2023년 한국전 정전70주년 때까지 참전 21개국과 유엔본부 (미국뉴욕) 등지에 순차적인 계획에 따라 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마지막 평화의 종은 통일 후 평양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평화문화도시인 김포 애기봉에 건립되는 남북평화의 종은, 종소리가 북녘 땅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9m 높이의 청동구조물로 제작되며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북을 비롯한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체인 형태의 UN 문자를 형상화하고 하단부에 평화의 종이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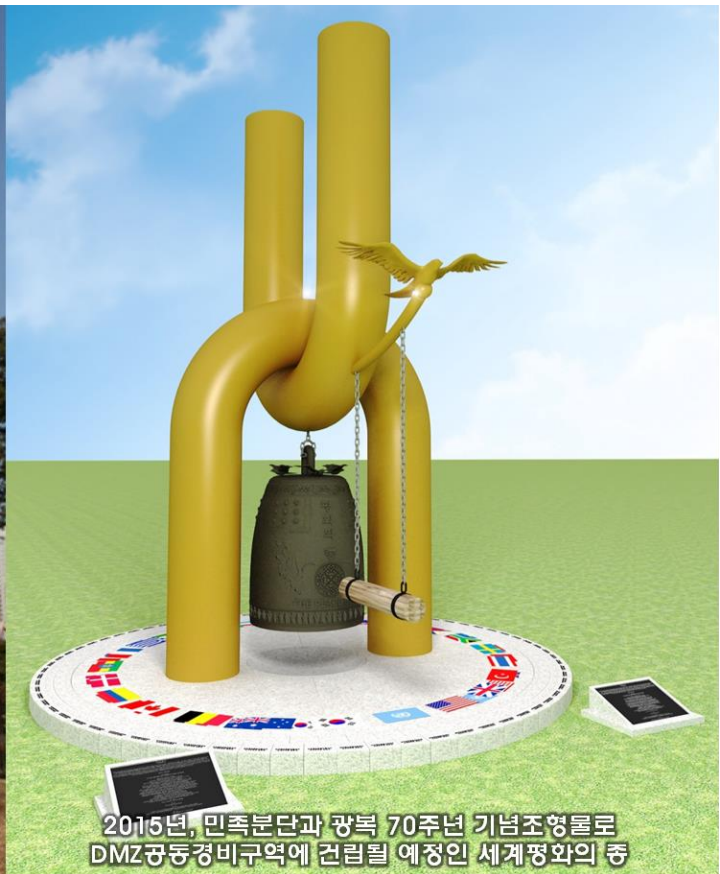
이 종은 국방부의 협력을 받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조망과 6.25 전투현장에서 수집된 남은 탄피,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순 그동안 수 십년이 넘도록 매년 성탄의 불빛을 북녘 땅에까지 밝혀오다 안전상의 이유로 전격 철거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했던 점등 탑 등을 녹여 제작한 전통적인 범종(한국종)이며, 종탑 기단 부분에는 타원형으로 참전국명과 국기를 조각해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을 예정이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은 '애기봉 남북평화의 종' 건립을 위해 지난 5일 김포를 방문해 한국평화의 종 미니어처 추대패와 녹슨 철책과 탄피로 만든 한반도평화메달을 유영록 김포시장에게 전달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인 김포에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남북평화의 종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관문으로서 김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2013년, 정전60주년 기념조형물로 용산전쟁기념관에 건립된 한국평화의 종



2015년, 민족분단과 광복 70주년 기념조형물로 DMZ공동경비구역에 건립될 예정인 세계평화의 종



에스-오일이
멸종위기에 처한
천연기름을 보호에
앞장섭니다

국민일보

이탈리안 모던 클래식
'반hardt 알바자'
2013 국가품질경영대회
[명품 창출 부문 대통령상 수상]

국민일보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기획

33

애기봉 전망대에 '남북평화의 종' 세운다

사업의 의미와 성공 방안 모색 위한 좌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남북평화의 종'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 전망대에 들어선다. 종은 2014년 철거된 애기봉 철탑의 쇠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녹슨 철조망, 6·25전쟁 전사자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납은 탄피로 제작된다. 71년 세월이 뒤 연발마다 성탄트리로 변신, 개성 시내까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상징이었던 애기봉 철탑이 철거된 뒤 비어있던 곳을 평화의 종소리로 채우는 것이다.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주관하는 '6·25 한국전쟁 참전 21개국 세계평화의 종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직위 상임추진위원장 소강석 새연교회 목사, 조직위원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집행위원장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민교협) 이사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시 새연교회 당회실에서 좌담을 가졌다.

“평화통일 염원 종소리 북녘 땅과 세계로 울려 퍼지게 할 것”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과 탄피 등을 녹여 평화의 종을 세우는 사업에 국내외 관심이 높다. 시작한 동기가 궁금하다.

▲송기학 이사장=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민교협이 국민일보와 함께 참전국을 찾아가는 보은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의 협조와 포스코의 지원으로 참전용사들이 즐긴 피담의 결정체인 DMZ 철조망과 한국전쟁 때 사용했던 탄피를 녹여 'DMZ국민보은메달'을 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진행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공식 기념행사에서 이 메달이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됐고 이들이 감동의 울음바다를 이루는 모습이 미국 전역에 중계됐다.

이때 경기도 파주시 실마리에 있는 영국군 전차비를 디자인했던 영국인 디자이너 니 아놀드 슈왈츠만 경이 생애 마지막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작품을 한반도에 두고 싶다고 전해왔다. 그해 12월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한국평화의 종'을 세웠다. 처음에는 슈왈츠만 경의 제안에 따라 경기도 파주 공경대 비구역(JSA)에 세우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국방부는 물론 유엔사령부, 정전협상국 당사자들의 동의는 얻지 못했다. 거친 뒤 비로소 지난해 JSA에서 '세계평화의 종' 착공식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평화의 종은 김포 애기봉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소강석 목사=북녘 땅에도 성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 애기봉에 세운 십자가 점등탑이 2014년 10월 안전문제로 전격 철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철거된 철탑에 담겨 있던 한국교회와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남북평화의 종'을 건립하란. 그 종소리가 북녘 땅 깊숙이 개성까지 들린다고 한다. 평화의 종 건립이후엔 타종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켜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일구어 가는 통일'을 준비하고자 한다.

-평화의 종 디자인이 특별하다. UN의 의미를 본딴다고 하는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영진 전 장관=독일 통일 현저에 가보니 분단 당시 세워졌던 시설물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분단을 상징하는 철조망과 탄피를 이용해 만든 조형물을 세울 생각이다. 70년 넘는 분단 역사 속에서 서로 이질화돼버린 남북한과 국내의 동포들이 필연적으로 화해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이다. 그만큼 오늘도 한반도 상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로 이때 기독교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소강석 새연교회 목사(왼쪽부터)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새연교회 당회실에서 좌담회를 가진 뒤 '남북 평화의 종' 모형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애기봉 철탑 쇠-DMZ 철조망-6·25 전사자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녹여 제작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종 모양, 'UN' 문자 체인 모양 형상화 DMZ평화기도회·평화의 종 타종행사 연중 진행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소강석 새연교회 목사 송기학 우리민족교류협회 이사장
우리 스스로 '일구어 가는 통일' 준비 한국 교계 평화통일운동 상징될 것 평화의 종 유엔본부 등에도 건립 계획

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UN 문자를 체인 형식으로 형상화했다.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필 도지사=현재 추진 중인 두 번째, 세 번째 평화의 종은 모두 우리 경기도 관할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70년 넘는 분단 역사 속에서 서로 이질화돼버린 남북한과 국내의 동포들이 필연적으로 화해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상황이다. 그만큼 오늘도 한반도 상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바로 이때 기독교

계가 중심이 돼 범국민적 평화통일운동의 일환으로 평화의 종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다.

-아무래도 순수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김영진 장관=평화운동은 기원이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리 세대를 넘어 다음세대로 이어져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단 호국의 달인 6월에 맞춰 남북평화의 종 착공식을 가지려 한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일까지 참전 21개국과 유엔본부 등지에 평화의 종을 건립코자 한다.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로 국내외의 공중파 방송들과 함께 동시 타종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화축제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JSA와 애기봉 정상에 평화의 종을 건립돼 역사적인 타종식이 진행된다면 본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한층 높아져 새로운 출구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 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한국교회와 함께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표방한 김포시와 적극 협력하려 한다. 그래서 애기봉에 건립되는 '남북평화의 종' 근처에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 통일수련원을 조성하고, DMZ를 체험해 보지 못한 지방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중 'DMZ평화기도회 겸 남북평화의 종 타종행사'를 진행해 한국교회의 통일기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갈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교회나 기관, 단체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소강석 목사=민족의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일을 어떤 해택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뜻 깊은 일에 참여하는 교회나 기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숭고한 헌신은 후손이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미 건립된 용산 전쟁기념관의 한국평화의 종과 동일하게 평화의 종탑 대리석 기단, 가장자리 등에 참여자들의 명판을 조각해 영구적인 기록물로 남기고자 한다. 종탑 전면부 중앙에 매달리는 타임캡슐에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기록 및 관련 영상, 사진 등을 수장해 통일이 되는 날 후손들이 개봉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유엔 본부와 참전21개국 등지에 건립될 예정인 평화의 종 건립사업을 비롯한 정례적인 타종 행사에 함께하고 조직위 특별실명위원회로서도 위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바람이나 당부바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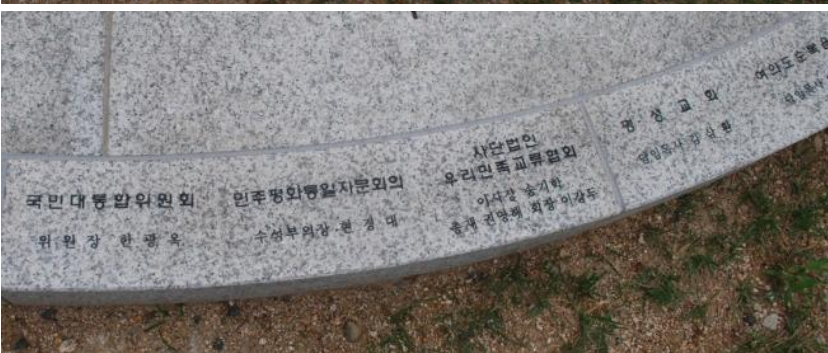
▲남 도지사=독일 통일의 시작은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시작한 일요평화기도회였다. 그들은 기도회를 중심으로 하나 둘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됐다. 한국교회도 수년 전부터 통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열망이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의 발판이 되고 통일의 기반이 되기 위해선 국민들과 국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현상인 JSA와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애기봉에서 한국교회와 중심이 돼 행해지는 범국민적 평화의 종 타종행사는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국교회와 오랜 기간 기도회로 심어 온 평화통일의 새싹이 울트게 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오늘날 세계평화의 상징인 것처럼,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분단 상징이자 현상인 JSA와 DMZ가 순수 민간 차원의 평화운동을 통해 세계평화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정리=김나래 기자 narae@kmb.co.kr



2013년,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조형물로 DMZ 철조망과 탄피를 녹여 용산전쟁 기념관에 건립한 한국평화의 종 기념비의 기단 모습과 기념비 건립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 및 단체, 종교기관, 개인 등의 명판 모습 (JSA와 애기봉에 건립 될 예정인 평화의 종 기념비 기단도 동일한 형태로 조성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세계각지에 건립될 예정인 평화의 종의 모든 기단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8. 28. AM07:30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회의실 주관: (사)우리민족교류협회 협찬: (사)한생명살리기운



지난 2015년 8월 28일, 국회의사당 귀빈 홀에서 진행된 “평화의 종 건립사업 각계 지도자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평화의 종 건립을 위한 범국민 참여운동의 마중 물이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평화의 종 건립기금 금일봉을 김영진 조직위원장께 전달했다.



년중계속사업

통일로가는길 발행 보급



1. 사업의 취지

‘통일을 외치는 자는 많으나, 통일의 길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급변해 가는 국제정세에 따라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길은 단숨에 결판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러기에 멀고도 험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남북교류와 평화를 쌓아가는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역사를 좀더 길게 바라보며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범국민 평화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고자 본 협회에서는 국내외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지 형식의 통일문제 전문 계간지로 <통일로가는길>을 발행하여 보급한다.

2. 사업의 개요

- 제호 통일로가는길
- 등록번호 종로 바00153
- 발행처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외교부 제358호)
서울시 종로구대학로 19 한국기독교교회관 311호
- 자료사진 국민일보DB I 뉴스스





년중계속사업

북한 어린이 돕기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1. 사업의 취지

범국민적인 통일참여운동 일환으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체험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재배운동을 시작하였다. 학교별로 인근 텃밭을 활용하여 학생들 자력으로 통일옥수수를 심고 가꾸어, 얻어지는 수익으로 북한 결식어린이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에 첫 사업을 진행하며, 통일옥수수 종자를 공급한 옥수수재단의 김순권 박사와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서울과학고등학교 전승환 교감 등 일차 참여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이므로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험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안산에 위치한 진흥초등학교(교장 정경동)를 비롯한 10개 학교에서 첫 사업을 진행하여 수확하게 된 옥수수를 주변의 많은 학생들과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협회는 본 운동을 장기적인 국민통일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행사기간: 년중 계속사업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진행방법: 초,중,고등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종교기관, 군부대 및 일단 시민단체 등 활용 가능한 텃밭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일옥수수 재배

협 찬: 국제옥수수재단

후원(예정): 국제라이온스협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주한인총연합회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사진 좌)과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이사장(사진 우)이 통일옥수수심기 국민운동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수확한 옥수수를 선별하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텃밭동아리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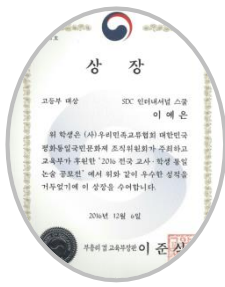


고양교육지원청이 지난201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열린 도시농업한마당 축제에서 우리민족교류협회, 국제옥수수재단과 함께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는 고양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인 ‘평화 고양교육 통일 관심 더하기’의 활동 중 하나로 통일 옥수수 재배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지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81개교가 참가했다.

체험 활동으로는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과 더불어,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통일체험과 교육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옥수수 가꾸기 국민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참가학교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텃밭에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찐 옥수수, 빵튀기, 조청 등의 2차 가공품을 제조하여 이를 행사장의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고양고등학교에서는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조청과 우리민족교류협회의 찐 옥수수와 빵튀기 등의 시식 행사는 많은 시민들과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우리민족교류협회 홍석준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통일 옥수수 재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통일 옥수수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 통일을 보다 피부에 닿게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오감만족의 통일체험과 평화통일 감수성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매년정기사업

국내외 통일문예 공모전



1. 사업의 취지

미래 통일한국의 주인공이 될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준비해 가는 통일교육과 더불어 스스로가 통일운동을 주도해 가는 참여의식을 함양함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가기 위한 범국민 통일 운동 차원에서 국내외 초,중,고 청소년들과 교사(해외 한인학교 포함)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통일문예 공모전”을 매년 정기적인 사업으로 개최하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국내외 통일문예 공모전

주 제: 통일로 가는 길

일 시: 2017년 6월~11월까지

후 원: 민주평화통일국민회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교육부 | 통일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역 교육청

시 상: 부처별 장관상 및 각 지역 별 교육감 상
통일관련 사회단체장 상 등



2016/대/안/민/국/평/화/통/일/국/민/문/예/제

FACE KOREA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기 위한
전국 교사·학생 통일논술
공모전
2016. 7. 1~ 10. 30.

공모 대상자: 통일로 가는 길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유리한 입장에서 일과餘暇를 헌신하여
어떻게 할까에 가아 하신가?

주제: 통일로 가는 길

공모 분야: 통일교육, 통일정책, 통일법률, 통일경제, 통일문화, 통일외교, 통일언론, 통일행정, 통일복지, 통일환경, 통일농업, 통일산업, 통일에너지, 통일자원, 통일환경, 통일농업, 통일산업, 통일에너지, 통일자원

공모기간: 2016. 7. 1~ 10. 30

심사기간: 11월 중 (통일부) 및 각별자치
- 시상식에 참석 (통일부) 및 각별자치
- 시상식에 참석 (통일부) 및 각별자치

심사위원: 통일부, 통일정책, 통일법률, 통일경제, 통일문화, 통일외교, 통일언론, 통일행정, 통일복지, 통일환경, 통일농업, 통일산업, 통일에너지, 통일자원

문의처: 통일부 통일교육정책실 (02-312-7491)
www.tongilwater.com

제1회 한반도 평화통일공헌대상 시상식

2016/대/안/민/국/평/화/통/일/국/민/문/예/제

전국 교사·학생 통일논술 공모전 시상식

일시: 2016. 12. 20. 오전 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귀빈식당

주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회의 주최위원회 • 주관: 시민단체 우리민족공명당
민주평화통일국민회의 교육부 통일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모대상자: 통일로 가는 길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유리한 입장에서 일과餘暇를 헌신하여
어떻게 할까에 가아 하신가?

주제: 통일로 가는 길

공모 분야: 통일교육, 통일정책, 통일법률, 통일경제, 통일문화, 통일외교, 통일언론, 통일행정, 통일복지, 통일환경, 통일농업, 통일산업, 통일에너지, 통일자원

공모기간: 2016. 7. 1~ 10. 30

심사기간: 11월 중 (통일부) 및 각별자치
- 시상식에 참석 (통일부) 및 각별자치
- 시상식에 참석 (통일부) 및 각별자치

심사위원: 통일부, 통일정책, 통일법률, 통일경제, 통일문화, 통일외교, 통일언론, 통일행정, 통일복지, 통일환경, 통일농업, 통일산업, 통일에너지, 통일자원

문의처: 통일부 통일교육정책실 (02-312-7491)
www.tongilwater.com

2016/대/안/민/국/평/화/통/일/국/민/문/예/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기 위한
전국 교사·학생 통일논술
공모전
2016. 7. 1~ 10. 30.

공모 대상자: 통일로 가는 길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유리한 입장에서 일과餘暇를 헌신하여
어떻게 할까에 가아 하신가?

주제: 통일로 가는 길

공모 분야: 통일교육, 통일정책, 통일법률, 통일경제, 통일문화, 통일외교, 통일언론, 통일행정, 통일복지, 통일환경, 통일농업, 통일산업, 통일에너지, 통일자원

공모기간: 2016. 7. 1~ 10. 30

심사기간: 11월 중 (통일부) 및 각별자치
- 시상식에 참석 (통일부) 및 각별자치
- 시상식에 참석 (통일부) 및 각별자치

심사위원: 통일부, 통일정책, 통일법률, 통일경제, 통일문화, 통일외교, 통일언론, 통일행정, 통일복지, 통일환경, 통일농업, 통일산업, 통일에너지, 통일자원

문의처: 통일부 통일교육정책실 (02-312-7491)
www.tongilwater.com

매년정기사업

평화의 종 타종식 나라사랑 국민음악회



1. 사업의 취지

급변해가고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할 우리들은 이제 지역과 계층간의 불화와 갈등의 에너지를 민족 대화합의 저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평화의 종 타종식과 더불어 DMZ 국민보은메달 헌정식, 그리고 지역과 계층,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나라사랑 국민음악회를 진행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한류문화 세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평화의 종 타종식 & 나라사랑 국민음악회

주 제: 사랑한다, 대한민국

일 시: 매년 7월 27일 전후(정전 및 유엔참전용사의 날 특집방송)

장 소: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출 연 진: 한국 10개 팀, 해외 5개 팀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 관: (사)우리민족교류협회

후 원:

협 찬:

3. 주요프로그램

제1부: 17:00 ~ 18:30

SHOUT OF WORLD PEOPLE

- I LOVE KOREA, I LOVE KOREAN -

(영상 축하 메시지 / 국제적인 주요인사)

제2부: 18:30 ~ 20:00

행복한 나눔, 하나되는 코리아

- 나눔으로 커져가는 행복 -

(사랑의 메시지 / 주최측 대표)

제3부: 20:00 ~ 22:00

민족의 함성 평화아리랑

- 사랑한다 대한민국 -

(영상 격려 메시지 / 대통령)





“존경과 감사”

6.25전쟁에 참전하신
귀하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평화한국이 건설되었기에
귀하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DMZ 철조망과 6.25당시 탄피를 녹여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제작한
보은메달을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귀하게 정중히 드립니다.

[메달 뒷면 문구]



국민보은메달은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롯한 한국전에 참전한 21개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DMZ 중부전선(6사단) 녹슨 폐 철조망,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제공받은 6.25전쟁 희생자 유해발굴현장에서 수집된 낡은 탄피 등을 녹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제작함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The medal above is a token designed by the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to repay the sacrifices made by the Korean War Veterans. With the support of POSCO, the medal is made with actual rusted pieces of the barbed-wired fence at the Korean DMZ embracing the spirit and faithfulness of every Korean citizen.

The Department of Defens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ommemoration Committee has designated this medal as the official medal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commemoration ceremony to be held at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shington DC on July 27, 2013. In recognition of the medal's authenticity, we hereby present you this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Signed on the 15th Day of July in the City of Washington D.C. in the Two Hundred Twenty Seventh Year of the Republic.



David J. Clark,
Colonel, Army General Staff
Executive Director, DoD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Commemoration Committee



한국전 정전60주년 미국정부 기념행사 공식지정메달 인증서(사진 좌),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DMZ 국민보은메달 기념우표 3종(사진 우)



매년정기사업

세계 한민족 청소년 백두산 평화캠프



1. 사업의 취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이 민족의 숙원임을 체험하고, 두만강을 넘어 대륙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는 세계 한민족 청소년 백두산 평화 캠프를 개최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세계 한민족 청소년 백두산 평화캠프

주 제: 민족을 위해 올라

일 시: 2017년 7월~8월 중

장 소: 러시아 핫산, 중국 훈춘, 백두산, 연길

후 원: 국민일보 | 한국청소년연맹 | 전국기독교총연합회 | 연변대학교 | 연변조선족자치주청소년발전기금회 | 연변일보 | 연변TV방송국



3. 주요프로그램

- 통일기원 두만강 콘서트
- 통일로 가는 길 백두산 트레킹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야영대회
- 연변대 하기대학
- 한중우호 연변아리랑





특별기획 사업

2017라이프찌히 국제평화대회 니콜라이교회 세계평화음악회



1. 사업의 취지

독일통일의 도화선이 되었던 월요평화기도회가 시작된 라이프찌히 성니콜라이교회와 대규모 시민들이 운집하여 평화를 외쳤던 교회 앞 광장은 독일 평화통일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역사적인 특별한 장소이다. 따라서 이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해 가기 위해, 역사적인 장소인 성니콜라이교회 광장에서 가능한 북한을 특별 초청한 가운데 유럽지역 한인 지도자들과 더불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음악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국제평화기도회, 그리고 한국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던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보은행사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 등을 개최 함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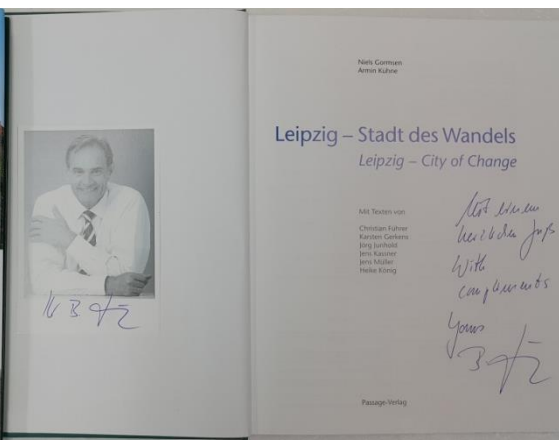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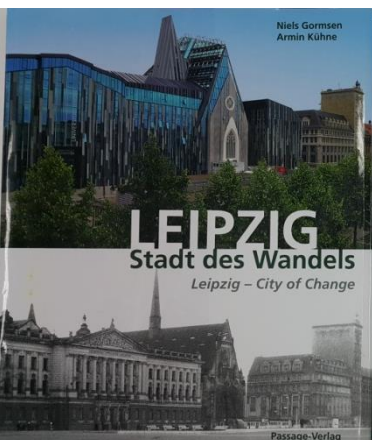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2017라이프찌히국제평화대회(성니콜라이교회광장 평화음악회)

일 시: 2017. 9~10월

장 소: 독일 라이프찌히

후원(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재독한인총연합회



월요평화기도회 지도자 크리스토프 본네베르거 목사를 통해, 독일통일의 상징적인 도시인 라이프찌히 시장께서 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께 친필서명과 사진을 부착한 라이프찌히 화보를 전달하고, 2017년에 라이프찌히 니콜라이교회 광장에서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와 콘서트를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해 왔다.

파독 근로자 보은행사

6.25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까지는 피 흘리는 참전으로 국토를 수호했던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숭고한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면, 그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은 파독 근로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독일정부의 도움이 있었음을 상기하고, 한독 우호를 더 한층 증진시킴과 동시에 파독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 하고자 국민의 이름으로 보은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파독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했던 근로장비를 녹여 제작한 국민보은 메달을 전달 한다.



"Thank you"

귀하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건설의 발판이 되었기에, 귀하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로 보답하는 의미에서 본 기념메달 중심부를 파독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했던 장비와, 한반도 DMZ 철조망을 녹여 제작하였음.



축사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과제들을 발굴하고,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열원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입니다.

70년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혜와 경험을 모아주시고, 평화통일의 여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201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드레스덴 선언1주년 기념 피스코리아 국제심포지엄 대통령의 축사(사진 상)와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 총장 기조연설(사진 하)



PEACE KOREA 드레스덴 선언 1주년 기념
The 1st Anniversary of Dresden Declaration
Symposium Jubiläum zur Dresden Erklärung

피스 코리아 국제심포지엄 PEACE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일시 : 2015. 03. 27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Date : Mar. 27, 2015 (AM 09:30 - PM 04:00)
장소 : 서울 플라자 호텔 그 Place: Plaza Hotel Grand Ballroom, Seoul



통일, 그 길을 묻다.

경

독일 드레스덴공과대학교 한스 뮐러-슈타인하겐 총장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Verleihung der Ehrendoktorwürde der Erziehungswissenschaften an den Rektor der Technischen
Universität Dresden, Deutschland Prof. Dr.Dr.- Ing.habil. Hans Müller-Steinhagen
2015년 3월 26일 16:00 단국대학교

축



201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드레스덴 선언1주년 기념 피스코리아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드레스덴대학교 총장과, 특별연사로 초청된 크리스토프 본네베르거 목사께서 단국대학교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각각 명예학위를 받았다.

2015학년도 영남신학대학교
독일 통일 기도운동의 주역
Christoph Wonneberger
명예신학박사 학위수여 및 감사예배
일시: 2015. 4. 1(수) 11:35~ 장소: 대강당



‘한반도 통일’ 교회 역할 제시한다

2015. 3. 5(목)

국민일보
미션1면
보도된 내용

독일통일의 도화선이 된 ‘구동독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 교회 월요평화기도회’의 지도자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71) 목사가 오는 26일 첫 방한한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방한 다음 날인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 정로)가 주관하는 ‘2015 서울·평양 국제평화대회(7월 27~30일) 오프닝 세리머니-피스코리아 국제심포지엄’에서 ‘독일통일과 교회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발제한다. 또 30일까지 한국교회 및 통일 관련 단체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 신학대, 교회 주일예배,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등에 참석해 설교할 예정이다.

성니콜라이 교회에서의 통일기도는 1982년 11월 시작됐다. 처음에는 서독의 군비증강에 반대하는 ‘반전(反戰)운동’의 성격을 띠고 매년 11월 열흘간 진행되다 80년대 중반 반전·평화·인권·여성을 위한 매주 월요일 오후 평화기도회로 발전했다. 당시 이 운동을 주도한 성직자가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 교회의 파레 C 피

1982년 11월 동독 성니콜라이 교회서 출발
統獨 도화선 된 ‘월요평화기도회’ 지도자

7월 ‘서울·평양 국제평화대회’ 사전행사 참석
‘독일 평화통일의 열망·경험’ 주제로 강연
교계 “한국교회 통일운동 한 단계 발전 기대”

리 목사(지난해 6월 별세)와 루카스 교회의 보네베르거 목사였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86년 라이프치히 지역교구로부터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평화기도회를 주관할 것을 위임받았다.

동독 당국은 월요기도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자 성니콜라이 교회로 가는 통행로를 차단하고 참석자들을 검거하는 등 탄압을 일삼았다. 또 라이프치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시해 보네베르거 목사를 평화기도회 주관목사 직책에서 해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독 공산 정권의 탄압은 오히려 시민들을 자극했고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시민단체와 함께 인권활동을 전개했다. 동독 정부가 주도하는 ‘교회의 날(Kirchentag)’에 대항해 ‘교회의날 대신(statt-Kirchentages)’ 단체를 조직했다.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비폭력’을 주제로 명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기폭제로 최초로 조직적인 월요평화시위가 이어졌다.

그의 주된 강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이었다. 산상수훈 메시지는 고통당하는 동독 주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크리스천은 물론 검거하러 출동한 경찰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다. 경찰들이 노도와 같이 몰려드는 군중과 영적인 힘에 압도돼 당국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동독 당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는 89년 10월 8일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호소문 3만장을 배포한 뒤 비폭력 시위를 이끌었다. 3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고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96년 그는 통독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공로 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독일 통일 시민운동 26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고 푸러 목사와 함께 독일국가상을 받았고, 라이프치히 미디어재단으로부터 ‘미디어의 자유와 미래상’을 수상했다

‘2015 서울·평양 국제평화대회’ 준비위원장 김성영 백석대 석좌교수는 “보네베르거 목사는 기도운동을 이끌 당시 동독 비밀경찰로부터 고초를 겪어 아직까지 심장병을 앓고 있다”며 “이 때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목사가 독일 라이프치히 자택에서 성경을 들고 마태복음 5~10장을 찾고 있다. 그가 찾고 있는 마태복음 5~10장은 1989년 9월 25일 라이프치히 성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린 평화기도회 때 시민들에게 전했던 성경 말씀이다. 아래는 기도회가 열렸던 성니콜라이 교회 전경. 퀸앤&B·우리민족교류협회 제공

문에 처음에는 행사 참여에 주저했지만 독일의 평화통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몸부림쳤던 경험을 한국교회와 나누기 위해 방한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5 서울·평양 국제평화대회’는 우리민족교류협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7월 27~3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논의하는 사업으로 7월 30일 북한 평양에서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02-3676-2007).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매년정기사업

독도 지키기 국제연대 운동



1. 사업의 취지

날로 노골화 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력 만으로 이를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순수 민간차원의 독도지킴이 국제연대를 결성하고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독도지킴이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행사명칭: 독도아리랑
 주 제: Korea land, Korean culture!
 일 시: 매년 10월 25일
 공동주최: 독도지킴이국제연대, 국민일보
 경상북도/ 주관 방송국

3. 주요프로그램

- 옛날부터 우리 땅 독도 만화보급운동
- 국제K팝 경연대회 독도아리랑 개최
 - * 대륙 별 예선대회 현지에서 개최
 - * 국제경연대회 서울에서 개최
 - * 최종예선 독도에서 개최
- 독도관련 국제학술대회 기획
- 독도소재 다큐 및 영화 기획제작





년중계속사업

Peace Korea Campaign



1. 사업의 취지

‘Peace Korea Campaign’은 우리민족교류협회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민일보 등 관련기관들과 더불어 6.25정전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참전국을 찾아가는 보은행사인 '세계평화 페스티벌 아리랑' 행사를 통하여 참전 21개국의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 녹슨 철조망을 녹여 만든 보은메달을 전달하는 순회행사를 시발점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룩되는 날까지 장기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 가기 위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Peace Korea Campaign

주 제: 통일이 보인다.

후원(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국제라이온스협회, 재독한인총연합회

3. 주요프로그램

- Peace Korea 제휴카드 출시(외환은행)
- 한국평화의 종 미니어처 보급
- 통일을 준비해가는 기관 인증명판 보급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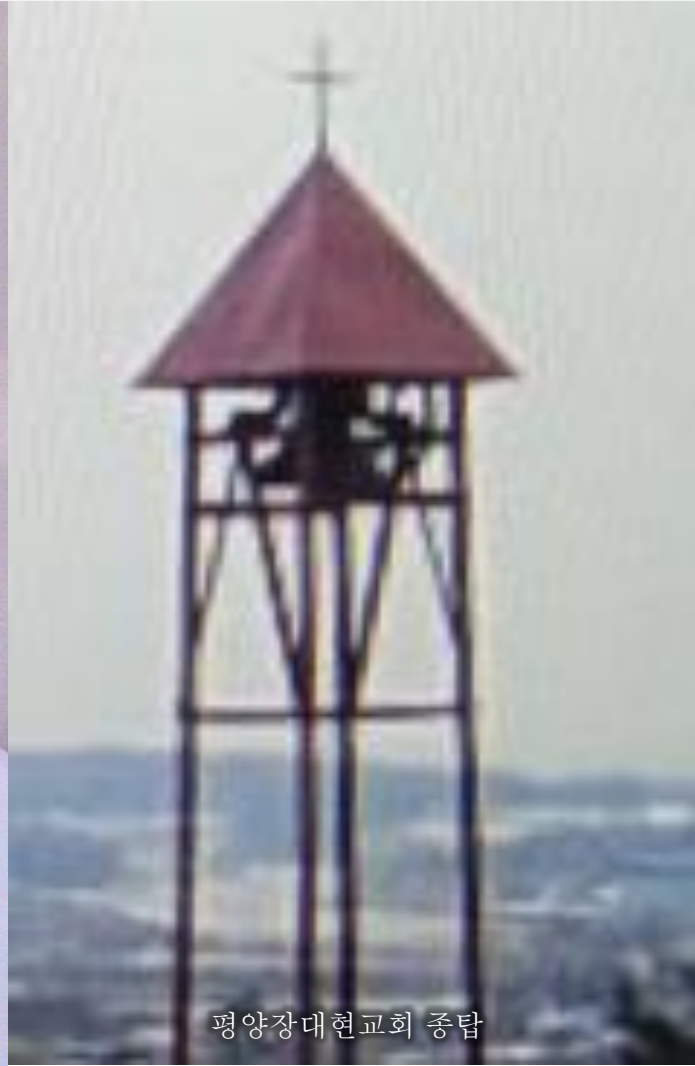
한국교회 평화의 성종은, 6.25정전 60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염원하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6.25당시에 사용되던 탄피와 DMZ 철조망을 녹여 제작했다.

60여 년 동안 민족분단의 아픔을 안고 곱씹게 녹슨 DMZ 철조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PEACE KOREA의 메아리가 되어 온 누리에 울려 퍼질 것이다.

한국교회 평화의 종 미니어처 보급운동



강대상용 평화의 성종



평양장대현교회 종탑

한국교회 강대상용 평화의 성종은 이 종이 울릴 때 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평양장대현교회 종탑을 본 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작되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민족분단의 아픔을 안고 검붉게 녹슨 DMZ 철조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PEACE KOREA의 메아리가 되어 온 누리에 울려 퍼질 것이다.

6.25와 그 이후 전후 복구 당시, 참전 군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다양한 구호물자였다. 그 구호 물자 대부분이 세계각국 교회 들을 중심으로 한 자선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마련되었음을 상기할 때 한국교회는 빛진 자의 위치에서 좀더 힘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하여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 폐철조망과 6.25당시에 사용되었던 탄피를 녹여 용산 전쟁기념관과 을곡동경비구역(판문점)에 건립한 평화의 종을 제조하면서 동일한 재질로 한국교회 강대상용 평화의 성종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통일의 그 날까지 모든 교회가 매 예배 시마다 평화의 성종을 울림으로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PEACE KOREA CAMPAIGN을 적극 전개해 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본 평화의 종은 비매품으로 PEACE KOREA CAMPAIGN에 적극 참가하는 교회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 보급해 갈 예정이다.

통일을 준비해가는 기관 인증명판 보급운동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길은 단숨에 결판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그러기에 멀고도 험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남북교류와 평화를 쌓아가는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역사를 좀더 길게 바라보며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범국민 평화통일운동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매년 7월 27일 진행하게 될 평화의 종 타종식 행사를 연결고리로 먼저 종교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가고자 한다.

본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는 인증명판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메달을 전달함과 동시에, 본 협회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제반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케 하여 70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 대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범국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인도주의 지원사업

북한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나눔캠페인 1인 1라면 보내기운동



1. 사업의 취지

자라나는 청소년은 그 민족의 미래요 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녘 땅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북녘 어린이들은 정치나 사상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될 우리민족의 미래요 희망이다. 이들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버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민족의 통일조국을 책임져야 할 더없이 무한한 한민족의 희망이기도 하기에 이들을 통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정치와 사상을 떠나 이들을 도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외 동포 모두가 범 민족차원의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북녘 땅 결식 아동을 위한 “1인 1라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북한 결식아동을 위한, 1인 1라면 보내기 운동

행사기간: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 행사기간 미정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진 행: Peace Korea Campaign 본부

진행방법: 남한인구 5000만 명이 북한 결식 어린이들을

위해 “한 사람이 라면 한 개를 보내자”는 목표로

한국 7대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ARS 등을 통한 범국민 사랑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확보된 식품을 북측에 전달함

협 찬: (주)농심(예정), (주)삼양(예정),

후원(예정): 국제라이온수협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주한인총연합회,



3. 주요재원:



[중 량] ,120g/개

[희망소매가격] 650원/개

[제 품 특 징] 기존의 쇠고기 맛 면에 스프의 쇠고기 분말 함량을 5배 늘리고 우유를 첨가하여 부드러운 맛과 육수의 진한맛을 증가시킨 제품

[비 고] 북한동포 돕기운동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된 제품



매년정기사업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1. 사업의 취지

본 협회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참전국에 대한 보은활동과 한반도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평화의 종’ 건립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2015년으로 한반도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범국민운동 일환으로 순수 민간차원에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제정하고, 매년 국내외 인사 중에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 대상자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

장 소: 국회의사당 귀빈홀

내 역: 종교분야 / 정치행정분야 / 복지의료분야 / 언론분야 / 경제산업분야 / 교육분야 / 시민사회분야 / 문화체육분야 / 국제분야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후 원(예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건국회, 국제라이온스협회, 미주한인총연합회,

3. 한반도 평화공헌 대상 메달

한반도 평화공헌 대상 메달(사진 우)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그 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 때 사용되었던 낡은 탄피를 녹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기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되었다.

(메달 이미지는 변동 될 수 있음)



2016 대한민국평화통일 국민문화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건전한 평화통일운동을 위해...

지난 2015년으로 민족의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모든 동포들의 가슴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모르는 통일의 길은 단숨에 결판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처럼 까다롭기 짝이 없는 경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멀고도 험한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전력 질주만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남북교류와 평화를 쌓아가는 지극히 기초적인 과정에 충실함과 동시에 역사를 좀더 멀리 바라보며 통일과 그 이후까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범국민 평화통일운동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회는 지난 2013년 6.25전쟁 정전60주년을 기념하여 순수민간차원의 통일운동 일환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 녹슨 철조망과 6.25 전쟁 때 사용했던 탄피를 녹여 용산전쟁기념관에 ‘한국평화의 종’을 건립하고, 매년 7월 27일 정전기념일에 진행하게 되는 타종식을,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소통 통일문화축제로 승화시켜 가기 위하여 국내외 각 계각층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범국민 통일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일운동은 특정한 단체나 기성세대들만의 일이 아니라 남,여,노소 모든 국민들이 함께 준비해 가야 할 범국민운동이면서도, 특별히 미래의 통일한국을 이끌어 가야 할 청소년들에 대한 통일준비운동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판단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논술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를 좀더 적극적으로 확산해 가고자 사회 각 분야별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이 같은 작은 노력이 나비의 법칙에 따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거대한 태풍으로 도래할 수 있도록 국내외 모든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6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시상위원회



시상위원장
정 의 화
19대 국회의장
조직위 명예위원장



시상위원
김 영 진
전 농림부장관
조직위원장



시상위원
박 주 선
국회부의장
조직위원장



시상위원
이 주 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조직위원장



시상위원
권 영 해
전 국방부장관
조직위 상임고문



시상위원
김 성 호
전 법무부장관
상임조직위원장



시상위원
송 기 학
통일로가는길 발행인
조직위 집행위원장



수상자 기념촬영기념촬영

순수민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해 가는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평화 통일국민 문화제 조직위원회는 통일운동의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가기 위하여, 매년 사회 각 분야별로 한반도 통일운동에 크게 기여한 특별 공로자들을 시상하기 위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제정함과 동시에, 미래 통일한국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교육차원에서 전국 교사/학생 통일논술 공모전을 연례행사로 개최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행사를 2016.12. 20일 국회의사당 귀빈홀 에서 성황리에 진행했다.

2016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大賞) 수상자



종교분야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대표회장 김삼환



정치행정분야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복지의료분야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최삼규 국민일보 사장(왼쪽)이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 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김영진 대한민국의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장으로 부터 언론 분야 대상을 받고 있다. 서영희 기자



언론 분야
국민일보사
사장 최삼규



경제산업 분야
MG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신종백

최삼규 국민일보 사장
한반도 평화통일공헌 대상 수상
남북 교류협력에 힘쓴 공로 인정받아

최삼규 국민일보 사장이 남북 교류협력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한반도 평화통일공헌 대상 수상을 수상했다. 최 사장은 우리민족교류협회와 대한민국의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언론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 통일운동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상식은 올해 처음 열렸다.

최 사장은 “2007년 성금을 모아 북한 개성에서 수재민들을 위로한 적이 있다”며 “당시 북한 주민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험벗고 굶주린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9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관계가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얼어붙고 갈라져 있다”며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헤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문화제 조직위 부위원장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남북 평화를 염원하고 헌신·봉사하는 범국민운동기구가 많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의 통일정책을 바로잡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교육 분야
SDC인내셔널스쿨
이사장 서대천



시민사회 분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 이정익



문화체육 분야
사단법인 솔리테오
상임지휘자 석성환



국제 분야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북경연락처 대표 강승국



매년정기사업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야 평화의 종 타종식



1. 사업의 취지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김포시애기봉 전망대 정상에 순수 민간차원의 범국민 통일운동 일환으로, DMZ 철조망과 6.25 당시에 사용했던 탄피, 그리고 지난 40여 년이 넘도록 이곳에서 평화의 불빛을 비추어 왔던 성탄트리 점등 탑 등을 녹여 제작한 '남북평화의 종' 타종식을 통해 국민대화합과 사회 통합을 구현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감대 확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제야 남북평화의 종 타종식

주 제: 아! 녹슬은 DMZ, 평화의 종이 되어 울리다.

일 시: 2017년 12월 31일 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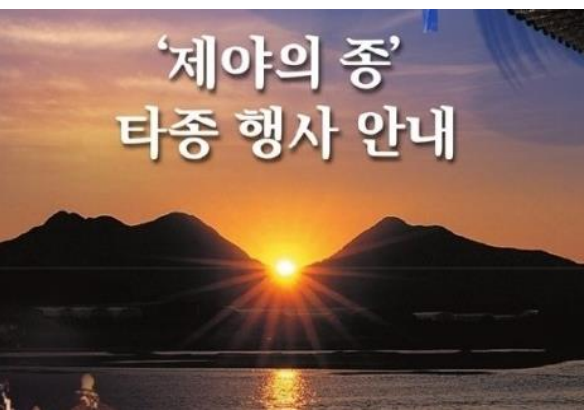
장 소: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 정상

주 최: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 김포시 | 해병2사단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방송주관: KBS한국방송(예정)

후 원: 민주평화통일국민회의 24:00 | 국민대통합위원회 | 통일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는
분단을 넘어 대륙으로
한민족의 역량을 펼쳐갑니다.**



상임고문 김삼환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장, 명성교회 원로목사
 상임고문 박주현 국회보좌관
 상임고문 손병두 전, KBS 이사장, 통합재단 이사장
 상임고문 송원주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 지구촌 공영의 이사장
 상임고문 연진형 전, 한국총림(한국총림협회) 대표회장
 상임고문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 중앙일보, 장영고문
 상임고문 이진삼 전, 청소년체육부장관, 유관총모총장
 상임고문 이태섭 전, 강북구청장, 라이온스클럽 국제회 회장
 상임고문 장상진, 이화여대총장, 국무총리



명예총재 권영혜 전, 국방부장관
 총재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명예회장 남경진 경기도지사
 상임대표회장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리대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공동회장 김영진 전, 통일부장관
 공동회장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지도위원장 소강석 안민총평화농재단 이사장, 세예년교회 담임목사
 부방교회회장 서대천 미래지도자연구소 회장, SDC인태네셔널 이사장
 이사장 송기화 통일외교연구원 발행인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Korean Informational Association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311호)
 Tel(02)3676-2007 Fax(02)3672-1907
 www.korinf.com